

광주경총, 권찬호 미래교육센터 관장 금요조찬포럼

# “AI, 인간능력 증폭기...리더십 화두는 집단지성”

“집단은 가장 우수한 개인보다 더 똑똑하고, 집단을 움직이는 힘은 질문할 줄 아는 리더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5시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720회 금요조찬포럼에서 권찬호 미래교육센터 관장은 ‘집단지성과 협력 그리고 AI 시대 경영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관장은 “AI의 기반에는 집단지성이 자리하고 있다”며 “정보화 사회와 AI 시대가 도래할수록 집단지성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화 사회에 집단지성을 이용해 AI를 만들어냈고, AI를 이용한 새로운 집단지성으로 인간의 역량을 증폭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다.

권 관장은 이어 “아주 미세한 쿼크(quark)가 모여 핵이 되고 원자로 만들어지듯 생명의 역사는 단위들이 응집해 더 높은 수준의 생명 단위를 만드는 과정의 연속이다”며 “집단화는 진화 고유의 특징”이라고 정의했다.

집단지성의 사례로 1906년 영국에서 열린 ‘황소 무게 맞히기 대회’를 소개했다. 당시 800여명이 황소의 무게를 추정했는데, 참가자들의 평균값이 실제 황소 무게와 거의 일치했다는 것이다.

권 관장은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편향이 발생하면 집단의 지성은 결국 하나의 지성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 “다양성·협력·질문하는 리더십 중요성 커져”

### AI, 암묵지 영역 한계...전문역량 갖춰야 성과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집단지성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인간의 욕심 때문에 협력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신뢰와 적절한 보상, 때로는 처벌 등을 통해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협력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 중간관리자를 중심으로 밀도 있게 연결된 그룹 구조가 효율적이다”며 “새로운 구성원 영입을 통한 다양성 확보와 지속적인 자료 공유, 네트워크 확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AI의 창의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권 관장은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 발명기도, 조류학자도 아니었지만 자전거의 이동 원리와 새의 비행을 연결해 비행기를 만들어냈다”며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개념을 연결하는 것이 창의성이다”고 말했다.

또 “찾을 수 없는 의외의 용도를 물어보고 2분 동안의 시간을 줬을 때 인간은 10개, AI는 122개를 언급했다”며 “AI는 무작위성을 통해 그 개념들을 의미있게 조합해 새로운 창의성을 만들어낸다”고 평가했다.

AI를 사용했을 경우 성과도 주목했다.

그는 “미국 MIT와 스탠포드 연구진이 고객 상담원 5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 전체

적으로 생산성은 15% 상승했다”며 “그 중에서 신입직원의 생산성 향상 폭이 더 컸다”고 분석했다.

이어 “두 번째 실험으로 아시아에 있는 은행에서 AI를 투입했는데, AI를 사용하는 그룹 모두 창의성이 올라갔지만 고성과 그룹이 저성과 그룹에 비해 더욱 높은 성과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다만 AI의 한계 역시 분명하다고 짚었다. 권 관장은 “문서나 그림처럼 명확하게 전달 가능한 형식지는 AI가 강점을 보이지만 경험과 감각이 축적된 암묵지는 해당 분야 인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AI가 잘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결국 집단지성과 인간의 개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집단지성을 활용해야 하는 리더의 역량은 질문하는 능력이 좌우할 것이다”며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 관장은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의 집단지성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AI는 인간 집단지성의 산물이자 경쟁자가 아닌 증폭기”라고 강조했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지난 15일 오후 5시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720회 금요조찬포럼에서 권찬호 미래교육센터 관장은 ‘집단지성과 협력 그리고 AI 시대 경영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확대도, 320여대 지원...접수 시작

전남도가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과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에 나섰다.

전남도는 올해 총 128종, 320여대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정보 접근을 돕고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국가유공자다. 신청은 6월 23일까지 가능하며, 주민등록지 시군 정보화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급 대상자는 서류심사와 상담원 방문 상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최종 대상자는 7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보급 품목은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장애 등 유형별로 나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와 점자정보단말기 등 61종,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터치모니터와 특수마우스 등 19종,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보조기기와 소리증폭기 등 48종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253대의 보조기기를 보급하며 장애인의 디지털 이용 환경 개선을 추진해왔다.

홍기주 전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 역량을 높이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 (주)TH홀딩스

건설·설치·인허가·리파워링·유지보수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 전남진흥원, 문화콘텐츠 창업 ‘성공’ 돕는다

### 22일까지 8개사 모집...기업 맞춤형 지원

(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전남도 문화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22일까지 지역 내 문화콘텐츠 예비창업자와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문화콘텐츠창업보육센터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시장 진출이 가능한 제품으로 고도화하고, 판로 개척과 홍보 마케팅을 통해 자생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본사가 전남도에 소재한 창업 3년 미만의 문화콘텐츠 기업이다.

올해는 총 8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500만원 내외, 총 4000만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투입한다.

지원 분야는 콘텐츠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인건비, 외주용역비 등), 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온·오프라인 광고, SNS마케팅, 라이브 커머스, 홍보 영상 제작 등) 등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 기업들의 수요가 높았던 운송비를 지원 항목에 포함하고, 전남글로벌게임센터와 연계

해 게임 콘텐츠 분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함과 동시에 사업의 실질적인 ‘콘텐츠 고도화’ 목적에 집중할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은 오는 10월까지 약 6개월간 집중적인 사업화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www.jcia.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인용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전남의 우수한 문화콘텐츠가 기회 단계에 머물지 않고 실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초기 콘텐츠 기업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전남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 전남도, 해외 상설판매장 신규 운영업체 모집

### 20일까지 5곳...임차비 등 개소당 최대 6000만원 지원

전남도가 농수산식품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2026년 해외 상설판매장’ 신규 운영업체 5곳을 모집한다.

해외 상설판매장은 외국 현지에서 전남 농수산식품을 상시 판매하는 공간이다. 김, 전동식품, 음료, 수산가공품 등 다양한 전남 제품을 해외 소비자가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남 농수산식품을 수입·판매하고 있거나 취급 가능한 해외 수입업체와 현지 유통업체(벤더)다.

신청 업체는 9월 30일까지 상설판매장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하며, 개설 후 1년 이내 전남 농수산식품을 20만달러 이상 수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형마트에 ‘숍인숍(Shop in Shop)’ 형태의 매장이나 단독 매장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판매장 내부에는 전남도가 정한 공동 디자인 매뉴얼을 적용해야 한다.

전남도는 판매장마다 지역 10개 기업 이상, 20개 이상 전남 농수산식품을 입점

·판매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임차비, 시설비, 홍보비, 시식 행사비 등 상설판매장 운영비의 70% 범위에서 개소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해외 상설판매장을 운영한 이후 전남 농수산식품의 안정적 해외 판로 확보에 공헌을 하고 있다.

지나해에는 미국, 중국 등 13개국 27개 판매장을 운영했으며, 상설판매장을 통한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23년 1041만달러에서 2025년 1167만 달러로 늘어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로또 6/45**  
9 18 21 27 44 45

### 로또 1등 12명...당첨금 각 24억1000만원

제122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일치한 2등은 70명으로 각 6900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춘 3등은 3373명으로 143만원씩을 받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8’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4억148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0명으로 각 6900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춘 3등은 3373명으로 14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춘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672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71만6244명이다.